

<제목> Newsight

<검색창>



<1 main page>

```
<btn main page>
```

<btn category page>

```
<btn topic page>
```

<검색창 – main page 랑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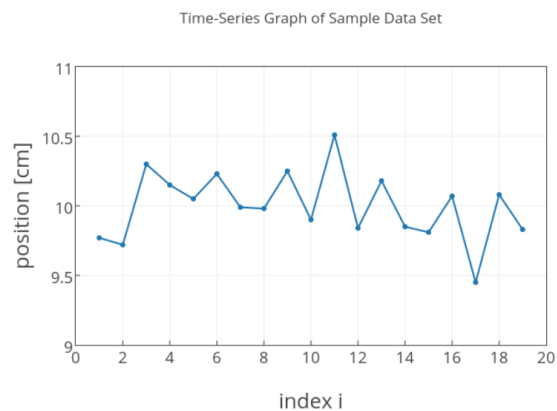
<word cloud or tag cloud>



<전체 기사 출현 빈도 시계열 그래프>

A line graph titled "Time-Series Graph of Sample Data Set". The x-axis is labeled "index i" and ranges from 0 to 20. The y-axis is labeled "position [cm]" and ranges from 9 to 11. The graph shows a fluctuating blue line with circular markers at each data point. The values start around 9.8 at index 1, peak at approximately 10.5 at index 11, and end around 9.8 at index 19.

index i	position [cm]
1	9.8
2	9.75
3	10.3
4	10.15
5	10.05
6	10.25
7	10.0
8	10.0
9	10.25
10	9.9
11	10.5
12	9.85
13	10.2
14	9.85
15	9.8
16	10.05
17	9.45
18	10.05
19	9.85



<2 category graph page>

<btn main 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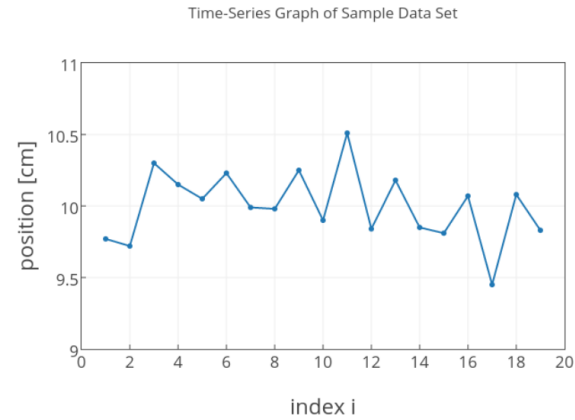
<btn category page>

<btn topic 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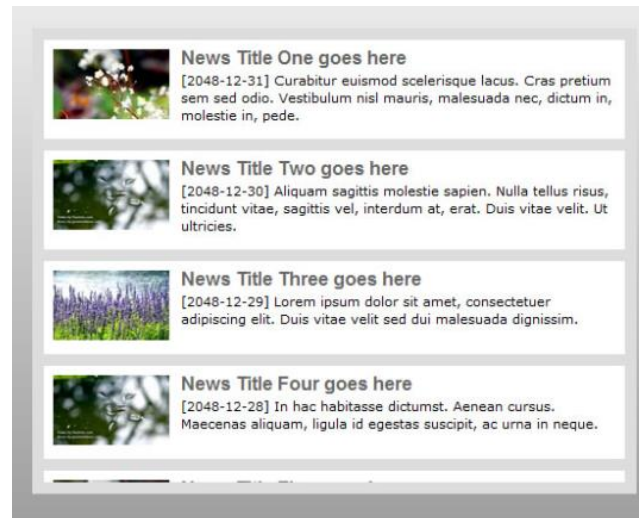
<검색창 – main page 랑 동일>



## <토픽별 기사 출현 빈도 시계열 그래프>



## <토픽별 대표기사 시간순 정렬>



<3 Topic page>

<btn main page>

<btn category page>

<btn topic page>

<검색창 – main page 랑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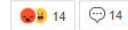


## <선택된 뉴스 본문 출력>

이데일리

### 리비아 피랍 한국인 남성 315일만에 석방...내일 귀국(종합)

기사입력 2019.05.17. 오전 9:34 | 기사원문 | 스크랩 | 본문듣기 | 설정



리비아 무장괴한 세력에 납치 남성 315일만 석방  
靑 "UAE 정부·모하메드 왕세제 석방에 결정적 역할"



지난해 8월 1일 '218뉴스'라는 리비아 류현 매체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리비아 납치 피학자들  
보이는 이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해 리비아 무장괴한 세력에 피랍된 한국인 남성 1명이 피  
랍 315일만에 석방됐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지난해 7월 리비아 남서부 ‘자발 하사우나’ 소재  
수로관리회사 ANC사 캠프에서 무장괴한 10여명에게 납치된 우리국민 주 모씨가 피랍  
315일 만에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피랍사건 발생 직후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법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리비아 정부를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우방국 정부와 공  
조하여 인질 억류지역 위치 및 신변안전을 확인하면서 석방 노력을 기울여왔다.

청와대는 특히 이번 우리 국민 구출에 UAE 정부와 모하메드 왕세제의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지난 2월말 서울에서 개최된 한-UAE 정상회담에  
서 모하메드 세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이 석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한  
것을 계기로, UAE 정부가 사건해결에 적극 나서면서 우리국민이 안전하게 귀환하는 성

<4 news page>